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경험한 자녀의 이중언어교육에 관한 연구

조승석¹, 김희순^{2*}

¹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²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Multi-cultural Family Mothers in Children's Bilingual Education

Seung-Suk Cho¹ and Hee-Soon Kim^{2*}

¹Dept. of Social Welfare, Konkuk University

²Dept.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경험한 자녀의 이중언어교육을 어머니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중언어교육의 질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7명으로 지속적 비교분석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로 서술하였다. 연구 결과는 공감, 정서교감, 행복감의 정서적 측면, 정체성노출, 모국어교육의 정체성 측면, 교우, 가족, 지역사회의 관계적 측면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자녀의 이중언어교육에 관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험에 대해 시도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이중언어 지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qualitatively looking into multi-cultural family mothers' experiences in children's bilingual education. The subjects for the study were seven married immigrant Vietnamese women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who have recently finished bilingual education. After recording their interviews and then transcribing them, the data was analyzed by utilizing comparative analysis method. The results we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of experiences: emotional, identical, and relational asp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offer information about necessary support for bilingual education to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Key Words : Bilingual education; Empathy; Identity; Multi-cultural family mothers; Relationship

1. 서론

최근 한국사회의 여성 관련 특징적 변화의 하나는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이다. 결혼이주여성은 개별가정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한 가정의 아내와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길러내는 어머니 그리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1]. 한 개인의 새로운 문화권으로의 이주는 단순한 지리적 이동만이 아닌 삶의 총체적 변화를 의미하며[2] 언어·문화적 적응이 요구된다.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이로 인한 불안감은 심리적 위축과 자녀교육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3]. 특히 자녀의 학교생활용어와 일상용어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의 한국어 이해 부족은 자녀교육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이로 인해 자녀가 어머니에게 보이는 무시와 불신은 자녀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3].

이러한 이유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육은 지원이 확대되었고, 이와 관련한 문헌들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좋을수록 자녀의 언어발달과 학교적응[4], 자녀의 정체감이나 자기 효능감에 긍정적 [5]임을 밝히고 있다. 반면 정부와 산하 기관의 전폭적인 한국어교육 지원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의 주된 어려움은 자녀와의 한국어 의사소통의 한

*Corresponding Author : Hee-Soon Kim(Soongsil Univ.)

Tel: +82-10-8924-5819 email: soonu224@naver.com

Received October 22, 2013

Revised November 4, 2013

Accepted November 7, 2013

계로 나타나고 있다[6]. 이러한 소통의 문제는 자녀의 언어 발달과 또래관계 형성 및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7].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논의가 활발해진 영역은 다문화 관련 이중언어교육이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언어교육은 기존의 일방적인 한국어 학습에서 어머니 나라의 말을 자녀가 함께 학습하는 양방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중언어교육은 두 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으로[8], 소수 집단 학생들이 주류 언어 및 고유 언어를 함께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정의한다[9].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이중언어교육은 한국어와 부모 나라의 언어 구사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다[10]. 최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중언어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11].

이와 관련한 문헌들을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대상자 별로 살펴보면 교육 프로그램은 필요성[12], 프로그램 개발[13], 사례[14], 프로그램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향상에 미치는 영향[15] 등에 관한 것들이다. 참여자 관련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인식하는 이중언어교육과 모국어 지도 경험에 관한 것으로 자신의 모국어를 배우기를 희망하거나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여 어머니가 직접 지도[16,17,18,19,20]하는가 하면, 모국어 교육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자녀에게 한국어 능력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어머니 자신의 모국어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21]하는 등 대조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홍종명[22]은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모국어 사용에 관한 연구에서 비주류 언어인 베트남어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강조하며 집중적인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녀의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험을 심층면담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자녀의 이중언어교육은 어머니에게 어떠한 의미이며, 모국어 소통 당사자로서 어머니는 어떠한 경험을 하였으며, 자녀의 모국어 학습 이후 가족의 삶은 어떠한지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이중언어교육의 질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자녀의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질적 연구는 자신의 관점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못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인간의 삶과 문화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여 연구자의 해석을 덧붙이는 연구방법이다[23].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심층면담으로 하였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대화를 통해 참여자의 경험세계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심층면담[24]은 자녀의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적합하며,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중심으로 집단 면담과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2.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7명이다. 한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이들의 자녀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사)한베문화교류센터에서 실시한 초등학생 대상 ‘다문화 이중언어 교실’을 수료하였다. 실제 면접 참여자는 총 8명이었으나, 자녀가 베트남에서 출생하여 베트남어 교육을 이미 받은 1명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최근 베트남 다문화가정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베트남 다문화가정 2세에 대한 이중언어교육의 기대와 관심이 증가될 것을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통계청[25]에 따르면 2011년 결혼으로 이주한 여성 가운데 베트남 여성은 7,636명(34.3%)이다. 이들이 낳은 자녀는 7,880명(35.8%)으로 2011년 출생한 다문화가정 자녀 3명 중 1명은 베트남 엄마를 두고 있다. 참여자들의 개인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모두 다문화가정 관련 경험자들이다. 연구자 중 한 명은 자료 수집 전부터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과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진행하였고, 다른 한 명은 결혼이주여성 대상 한국어 강사와 다문화가정 상담가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뒷마당에서 하는 연구’[26]가 가지고 있는 손쉬운 접근과 사전에 형성된 라포 등으로 인한 자료수집 제한을 고려하여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위의 참여자들을 선정하였다. 참여자 선정 기준은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없으며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친 경험이 없는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여성들이다.

2.2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2013년 4월 26일부터 6월 12일까지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집단 면담과 개별 면담에 각각 1회씩 참여하였다. 집단 면담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연구주제에 대한 참여자들의 이야기에 대해 연구자가 구체화시키는 질문 형식으로 2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개별 면담은 면담 형식으로 소요된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이다. 연구의

[Table 1]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Participants	Age	School career	Job	Korean residency period	Children's age		Communication language with children
					male	female	
1	29	High school gradu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teacher	8 years	8		Korean
2	30	Middle school graduation	Baker	10 years	6	10, 9	Korean
3	30	High school graduation	Housewife	7 years	7	4	Korean
4	30	High school graduation	Housewife	7 years	7		Korean
5	34	Middle school graduation	Day labor	9 years	10		Korean
6	34	Middle school graduation	Day labor	10 years	6	10	Korean
7	39	High school graduation	Housewife	14 years	13		Korean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으며, 참여자의 진술에 기록된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면담 일정은 연구 참여자들의 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집과 직장 근처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은 면담의 일관성을 고려해 동일한 연구자가 진행하였으며, 참여자들의 동의 후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다. 녹음된 파일은 면담 직후 면담을 진행한 연구자에 의해 바로 전자되었다. 반구조화된 질문지의 내용은 자녀가 모국어를 학습한 어머니의 경험에 관한 것으로 정서적 측면과 정체성 측면과 관계적 측면에 관한 것들이다. 집단면담과 개별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의 이중언어에 대한 생각과 이중언어교육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공유하며 서로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연구자들은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생생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2.3 자료 분석

분석은 지속적 비교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지속적 비교분석방법은 귀납적인 접근에서 연역적으로 또 다시 귀납적 접근으로 되돌아가는 반복적 특성으로 사례 간과 사례 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는데 유용하다[27]. 코딩체계는 5번의 통독과 3번의 수정으로 만들어졌다. 연구자는 전사본을 통독하며 잠정적인 개념들을 메모하였고, 이 개념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비교, 분류하며 새로운 개념을 덧붙여 나갔다. 분석 과정의 궁금한 내용 또는 정보의 확인은 전화로 통화하며 추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종 코딩체계는 정서적 측면, 정체성 측면, 관계적 측면으로 도출되었다.

연구의 엄격성은 Lincoln and Guba[28]가 제시한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의 4가지 평가기준에 의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사실적 가치는 참여자들의 생각과 실재를 잘 반영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수집하였다. 면담을 수행한 연구자의 한국어 지도와 다문화가정 상담경험은 참여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용어와 어휘 선택에 도움이 되었고, 참여자에게 신뢰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적용성은 연구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범주를 도출하려고 노력하였고, 이를 위하여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포화시켰다. 일관성은 사회복지 질적 연구 교수의 지도와 다문화가정 관련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동료집단의 조언을 받으며 연구 결과의 신뢰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중립성은 연구자들의 다문화가정 관련 경험에 의한 선 이해와 편견에 유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일지 또는 현장노트를 기록하며 반영적 시간을 가졌다.

III. 연구 결과

위와 같은 방법론적 절차에 의해 도출된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경험한 자녀의 이중언어교육은 정서적 측면, 정체성 측면, 관계적 측면으로 범주화 되었다.

3.1 정서적 측면(불통에서 소통으로)

자녀와의 모국어 의사소통은 참여자와 자녀사이에 약해진 심리적 유대감과 단절감을 경감시켜 주었다. 성장하는 자녀와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갈등을 겪었던 참여자들은 자녀와 모국어로 소통함으로써 공감, 정서교

감, 행복감을 느끼며, 어머니로서의 보람과 한국에서의 강한 삶의 의지를 나타내 보였다.

3.1.1 공감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어머니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었다. 어머니의 모국어를 배우며 외국어 학습의 어려움을 경험한 자녀는 외국인인 자신들의 어머니도 한국어 습득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알게 되었다. 미숙한 한국어로 자녀의 학습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여 자존감이 저하되었던 참여자들은 자신의 언어적 어려움을 공감해 주는 자녀로 인해 눈물을 흘렸다. 말이 통하지 않는 엄마에게 “엄마가 한국 엄마면 좋겠다.”는 소리를 들었던 참여자는 마음속에 열등감과 자괴감이 맺혀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렸었지만 ‘고생 많이 했을 것’이라는 자녀의 한 마디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었다. 외국인 어머니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우려했던 참여자는 ‘엄마가 최고’ 라는 자녀의 말에 강한 삶의 의지까지 나타내 보였다.

수진이가 베트남어 배우면서 ‘나도 이렇게 힘든데...’ 엄마도 한국 와서 한국어 배우면서... 고생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수진이가 언어교실 다니기 전에는 항상...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한국 엄마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언어교실 다니고 나서, 엄마가 최고라고... 자랑스럽고 엄마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다고 했어요. 그때는 밤에 많이 울었는데...이제는 좋아요. 수진이가 엄마나라에 관심이 있고요. 엄마 마음도 조금 이해해 주고 위해 줘요. 수진이가 고맙고, 한국에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참여자 1) / 엄마는 베트남 사람인데, 어떻게 한국말 잘하냐고. 힘들지 않았냐고,,,(참여자 4)

참여자들은 결혼을 전제로 고국을 떠나 낯선 한국 땅으로 이주해 왔다. 대부분 이른 나이에 출산과 양육의 갈등을 겪으며 부모님과 친지들을 그리워하던 참여자는 자녀의 모국어 구사만으로도 고국의 향수를 느낄 수 있었다. 자녀의 ‘메(엄마)’라는 한 마디는 그리운 고국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어머니의 모성까지 공감하게 해 주었다.

아이가 ‘메’(엄마)라고 부르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눈물이 나오...내가 우리 엄마 부를 때 그런 느낌... 나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 엄마’라고 불렀으니까요. 그 공부하고 나서 더 자주... 해 줘요.(참여자 3) / 얘기한테 들으면 좋죠... 이런 말 매일 매일 들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거 같아요. 힘이.. 생기죠.(참여자 6)

베트남어는 동일한 뜻이지만 대상에 따라 다른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한국어로 “사랑합니다.”는 대상에 구별이 없지만 베트남어로는 남녀의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친지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부모와 자녀는 부모-자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참여자는 자녀의 “사랑합니다.” 라는 말에 모국의 정서를 느낄 수 있었고, 서러움으로 점철된 이국에서의 삶에 위안을 받았다.

내가 화났을 때는 영수한테 베트남말로 얘기해요. 그러면 영수가 베트남말로 “사랑합니다.” 해요. 모르겠어요...그 말을 들으면 너무 좋아서 그냥... 눈물이 나오. 너무 감동이었어요. 엄마와 아기가 하는 “사랑합니다.”는 느낌이 달라요.(참여자 2) / ‘베트남어로 “사랑해요.”라고 하면 내 기분이 좋고 눈물이 많이 나오.(참여자 7)

3.1.2 정서 교감

참여자는 모국어 대화로 자녀와 ‘사이가 좋아져’ 친밀함을 느끼게 되었다. 자녀는 어머니 나라의 ‘웃도 입어’ 보며 어머니와 모국 정서를 교감하게 되었다. 어머니 나라에 대한 이해는 어머니에 대한 이해가 되었고,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한 자녀의 세심한 배려가 되어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었다. 참여자는 자녀의 표현력을 길러주고,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는 모국어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학교 갔다 와서 한 개씩 가르쳐줘요. 발음도요. 무슨 말인지 뜻 모르면 적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며 대화해요.(참여자 1) / 베트남 문화를 배우면서 웃도 입어보고... 베트남에서 먹는 과일도 알게 되면서 엄마나라에 관심 생기고... 영수도 엄마랑 사이가 좋아져서 좋아해요.(참여자 2) / 엄마랑 더 말이 잘 통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좋아요. 아이가 컸을 때, 엄마랑 말이 잘 통해야 문제가 없어요.(참여자 5) / 제가 화나면 베트남어만 써요. 아이도 그때는 베트남어로만 말해요. 자기가 매 맞지 않게 그런 방법을 써요. 웃음이 나죠.(참여자 4) / 수진이는 한국말보다 베트남 말을 많이 안 들어서, 제가 베트남 말로 하면 재미있어 해요.(참여자 1)

3.1.3 행복감

참여자는 자녀가 모국어를 구사하는 것을 바라보며 행복함을 느꼈다. 모국어 ‘엄마 사랑해요’는 차별과 편견으로 혼란스러웠던 참여자에게 어머니의 정체성을 찾게 해주었고, 어머니로서의 만족감을 높여 주었다. 자녀가 외국인 어머니의 고충을 이해하며 아버지에게 어머니에 대

한 배려를 요청할 때도 참여자는 행복한 마음을 나타내 보였다. 이해가 부실한 한국어 소통으로 인해 자녀와 감정적으로 풍부한 교감을 하지 못했던 참여자는 자녀와의 모국어 대화로 내적 감정을 정확하게 감지하며 기쁨 마음을 표현했다. 자녀와의 모국어 대화는 ‘설레임’으로 참여자의 행복감을 상승시켰다.

아이가 하는 말이 귀엽잖아요. 그런 거 보는 제 마음이 되게 행복해요.(참여자 3) / 아빠한테도 엄마가 힘들다고 얘기해서 많이 도와줬어요. 되게 좋고 행복했어요.(참여자 1) / 자기 전에 저한테 “엄마, 사랑해요.” 해요. 그럼 이제 내가 얘기 낳은 보람이 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엄마다. 그런 거 생각하면 행복해요. 얘기가 그런 말 매일하면 자주하면 좋겠다. 설레임...마음이 설레이게 되요. 보람을 많이 느껴요. 내가 한국에 잘 왔다. 내가 얘기 잘 낳았다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7) / 제가 엄마라고 부르지 말고 베트남어로 엄마인 ‘메’라고 부르라고 해요. 되게 좋고 행복했어요.(참여자 5)

3.2 정체성 측면(절망과 희망사이)

결혼이주여성으로서 받는 차별적 시선과 사회적 편견이 자녀의 정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며 절망적이었던 참여자는 이중언어교육을 통해 자녀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게 되었다. 모든 참여자들은 모국어 교육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희망을 언급하기에는 베트남 다문화가정 2세대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다.

3.2.1 정체성노출

참여자는 자녀가 외국인 어머니인 자신을 싫어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위축되어 있었다. 그러나 자녀들은 이중언어교실 수료 후 학교에서 ‘우리 엄마 베트남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었다.

한국 사람들은 어디가면 “당신 어디서 왔어? 한국사람 아니지?” 그러면 마음이 안 좋아요. 저는 괜찮은데 아이가 그런 마음 느낄까봐 마음이 안 좋아요.(참여자 3) / 베트남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친구랑 과일을 사는데, 외국인에게는 안판다고 그랬어요. 학교가기 전에 좀 불안하고 많이 걱정했어요. 혹시 엄마가 외국 사람이라, 차별할까봐, 그런데 예랑이 학교 가서 2주일 만에 자기 친구들한테 오픈했어요.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와서 저한테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라고 내가 친구들한테

얘기했다.”고 했어요.(참여자 7) / 우리 아이는 누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 보면 ‘반, 반’이라고 해요.(참여자 5) / “한국 오면 한국사람, 베트남 가면 베트남 사람이에요.”이래요.(참여자 6)

어머니 나라의 말과 문화를 배운 자녀들은 한국인과 베트남인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 들였고, 어머니의 나라인 베트남에 대한 자부심도 나타내 보였다.

베트남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유학하고 싶으면 베트남으로 간다고, 미국은 안가고.(참여자 2) / 수진이와 많이 이야기하게 됐어요. 엄마는 어차피 베트남 사람이니까, 누가 말하면 당당하게 “그래, 우리엄마 베트남 사람이야.”라고 말해야 돼. 그리고 “니네 엄마 베트남 말 할 수 있냐?”라고 말하라고 가르쳤어요.(참여자 1)

3.2.2 모국어 교육

참여자들은 자녀의 언어습득 시기에 남편과 시부모가 한국어만을 가르칠 것을 중용해 모국어를 가르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비주류 언어로 차별적 무시를 당했던 참여자들은 이중언어교육에 대해 강한 열의를 보였다. 이중언어 습득으로 자녀들이 언어와 문화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이중언어와 이중문화가 자녀들의 미래에 장점으로 활용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영어배우는 것처럼, 아기 때부터 베트남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가르칠 마음이 없었어요. 서러웠어요... 이번에 가르치면서 생겼어요. 내 친구는 아이가 베트남 말하고 한국말도 잘해서 부러워요.(참여자 6) / 수진이가 잘하는 거보고 더 가르치고 싶어졌어요. 나중에 베트남에 가서 무역도 하고 무역회사도 하고, 베트남에 집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아요. 베트남어도 잘하면 좋은 회사 들어가서 일할 수 있어요. 굳이 영어만 따라할 이유가 없어요(참여자 1)

참여자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나라 모두의 문화 환경에 긍정적인 정체성을 인식한 자녀가 역량 있는 이중언어자로 성장하여 ‘차별 받지 않고’ 한국과 베트남 사회에서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만약에 영수가 나중에 베트남어 잘하면 베트남에 가서 사람구할 때, 베트남어도 하는 한국 사람이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베트남 말 잘하면 베트남 가서도 차별 받지 않고 잘 살 수 있어요.(참여자 2) / 꾸준히 하고 아이도 선생님 언제 오나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감사해요. 공부

를 계속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4) / 그게 소중한 도움이 예요... 베트남 어머니가 엄마가 자식들에게 알려 주는 것은 힘들어요. 가정생활이 시간 없구, 돈 없구, 돈 벌어야 하니깐 힘들어요.(참여자 7)

3.3 관계적 측면(도전과 응전)

이중언어교육은 참여자와 자녀에게 도전과제가 되었던 ‘관계’의 위기에 응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어머니의 모국어와 문화를 습득함으로써 어머니 나라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지게 된 자녀들은 교우 및 가족관계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3.3.1 교우관계

참여자들은 자녀를 양육하며 자신의 아이가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거나 또래들과 다른 피부색으로 인해 ‘왕따 될까봐’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녀가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과 어머니의 모국인 베트남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교우관계를 맺는 것을 보며 ‘자랑스러워’ 하였다.

엄마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이제 교육받고 나서 친구들도 사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해요. (참여자 6) / “그럼 너, 해봐.”, 그러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요. 집에 와서 얘기하는데요. 친구한테 자랑했다고 그래요.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니까, 친구들이 멋있다고 했대요. 좋지요. 자랑스럽고요... 매일 왕따 될까봐 걱정했잖아요.(참여자 5) / 아무래도 아이들이 베트남어 할 수 있으면 다른 아이들한테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참여자 2) / 친구들 집에 많이 데려왔어요. 그러면 음식 많이 해주고 베트남 글씨, 말 가르쳤어요.(참여자 4)

3.3.2 가족관계

베트남어 학습에 무관심하던 참여자의 남편은 어린 자녀의 권유로 아내의 모국어를 배우게 되었다. 어머니 나라에 대한 자녀의 변화는 남편의 변화로 이어졌으며, 의사소통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가족 간에 즐거운 정서적 소통이 이루어졌다. 기본적인 베트남어를 구사하게 된 자녀는 베트남 친지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며 전화 통화를 자주 하게 되었다. 의사소통 문제로 소원했던 베트남 친지들과 자녀는 모국어 소통으로 친숙해지며 가족 간 유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아빠한테 “아빠, 베트남 말 할 줄 알아?” 물었어요. 아빠가 ‘아니’, 그러니까,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아빠 앞에서 글씨 쓰고, 아빠보고 따라하라고 그랬어요.(참여자 4) / 아빠가 하루에 한번이라도 베트남어 가르치라고 해요. 남편도 얘기가 엄마나라에 대해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대요.(참여자 5) / 아빠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엄마랑 얘기할 때는 베트남 말로 하고 아빠하고 얘기할 때는 한국말로 하기로요.(참여자 1) / 이제는 외할머니한테 갈 때, 말이 통해서 좋아요. 노래도 해주고, 안부도 묻고 했어요. 더 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7) /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이해해주고, 자주 물어봐요.(참여자 3)

3.3.3 지역사회관계

참여자들은 고유언어와 문화를 거부당하며 편견과 차별의 시선 등의 부정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식과 행동은 지역사회에서 다른 양상을 보여 주었다. 참여자는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자녀 양육과 권한을 제지당하며 소극적인 삶을 살아왔지만 자녀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았으며,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그들의 대응은 적극적이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결혼으로 이주해 오는 자국여성들의 통·번역 일과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며 이전과 다른 차별화된 삶의 자세를 보여 주었다.

베트남 사람들 처음 오면 한국말 모르잖아요. 그러면 병원도 데려가서 검사도 해주고 그래요. 내가 도와주면 보람이 되니까... 봉사하면서 제가 배울 수 있잖아요. 병원가도 그거 배우는 거잖아요.(참여자 2) /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봉사하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렇게 한국말 잘하는데, 왜 돈 벌지 않고 봉사 나오냐고... 같은 베트남 사람들도 그래요. 언니 바보냐고... 돈 벌지 왜 봉사 하냐고.(참여자 3) / 제 생각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제게 봉사해 줬으니까, 저도 한국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참여자 4) / 새마음회는 뭐하는 거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밥해주는 거요. 지금 제가 딴 사람 도와줄 수 있어서 도와주면, 나중에 제가 나이 많았을 때, 남들이 나를 도와줄 거고, 우리 애들이 밖에 나가서도 나쁜 사람 만나지 않고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참여자 7)

한편 참여자들은 자녀가 경쟁력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며 자신이 본이 되기 위해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어쨌든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으니까 나쁜 일들은 지나가도록 노력하며 살 거예요.(참여자 1) / 아이가 하는 국어 구문 학습지도를 따라했어요. 공부 많이 해서, 나중에 아이가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3) / 한국 엄마들처럼... 아이들 가르칠 때 제가 한국어말로 유창하게 하고 싶어요.(참여자 2) / 공부 많이 하고 자격증도 따고 싶어요. 그러면 저도 자신감이 생기고 아이도 자신감이 생기잖아요.(참여자 6) / 살면서 한국 사람들하고 대화 많이 하고 싶어요. 저는 항상 사람들하고 이야기 하고 싶어요. 또 배우고 싶고.(참여자 4) / 역시 한국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 느꼈어요. 가끔 모임 같은 거 있으면 토론 같은 거 하잖아요. 저도 많이 참여해봤어요. 내가 아직 부족한 게 많이 있구나, 생각이 들고 욕심이 많이 나더라고요. 국회의원 자스민을 보면서 되게 부러운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노력안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참여자 5)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자녀의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험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과 현황, 자녀의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이중언어 사용 환경에 대한 부모의 불안감과 갈등에 관한 것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본 연구는 어머니의 관점으로 자녀의 이중언어교육을 경험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로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와의 모국어 의사소통은 자녀와의 정서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어머니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며 어머니를 이해하게 된 자녀는 외국인 어머니의 어려움을 공감하게 되었다. 자녀의 공감어린 위로는 이질 문화와 언어장벽의 갈등으로 위축되었던 어머니의 자존감을 높여 주었다. 자녀와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단절되었던 정서적 교류는 모국어 대화로 소통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녀와의 친밀감도 높아졌다. 자녀의 모국어 구사는 그 자체로 어머니에게 행복감을 주었다. 이중언어의 중요성은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에 대한 존중, 정서적 교감, 친정과의 교류에 있다고 밝힌 최나야 등[2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본 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교육에만 초점을 맞춘 지원은 다문화가정 모-자녀관계의

또 다른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자녀의 이중언어교육을 간과한 결과가 된 것도 사실이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들은 성장하는 자녀의 한국어 실력을 따라가지 못해 언어적·문화적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으며, 실제 자녀와 대화를 충분히 하는 경우는 29% 밖에 되지 않는다[30]. 이 같은 결과는 모국어 대화를 통한 자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자녀 대상 이중언어교육과 어머니가 자녀에게 모국어를 직접 지도할 수 있는 학습교재 마련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자녀의 어머니 나라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은 어머니와 어머니의 모국어에 대한 존중과 자긍심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친구에게 부모를 소개시켜주는 정도와 어머니의 모국어를 사용하며 어머니 나라를 좋아할수록 학교적응을 잘한다는 문영희 등[3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중언어의 사용과 이중문화를 즐기는 정도가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신혜정[5]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모든 참여자들이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교육이 지속적으로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 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자신의 모국어에 대한 교육을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인식하며, 이중언어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보여준 고은[6]의 연구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모국어 소통으로 인한 가족 간의 친밀한 결속뿐 아니라 최근 경제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참여자의 모국어 자녀의 미래에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한국 거주기간 7~14년차인 참여자들의 특성도 모국어교육 의지를 높여 주는 동인이 되고 있다. 초등학교 학부모인 참여자들은 자녀에게 모국어 지도를 일찍 시작하였어도 자녀의 한국어 습득이나 학업에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양육경험을 통해 확신하고 있었다. 영아는 두 개 이상의 언어를 받아들이는 능력과[32]언어가 다른 두 개의 어휘를 동시에 말하는 두뇌능력[33]이 있다는 것을 이들의 양육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또한 비주류 언어인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모국어 교육에 대한 의지로 자녀들을 직접 가르친 경험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22].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교육 지원과 이러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중언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국어와 같은 주류 언어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램지원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가정 배우자와 시부모 대상의 이중언어교육 인식 프로그램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의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통제는 이중언어교육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13]. 이중언어의 사용과 문화의 전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계획과 절차를 수반하므로 가족의 관심과 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34].

셋째,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은 위축되었던 자녀의 교우관계, 불통되었던 가족관계, 수동적이었던 어머니의 지역사회관계에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어눌한 한국어 구사로 또래에게 언어적 제약이 있는 존재로 인식되었던 자녀들은 이중언어 구사에 대한 자부심으로 친구관계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자녀는 다문화에 대한 낮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김승희[19]의 연구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또한 자녀의 변화에 삶의 의지를 다지는 참여자들은 자국을 포함한 다른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서비스수혜자에서 서비스제공자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체성 문제해결은 부/모 자신의 자존감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부/모는 자신의 강점을 활용 해 역량을 키우고, 위축된 자아를 되찾아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는 김승희[19]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갈등, 위기, 절망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삶을 개척한다는 김민정 등[35]의 연구와 자녀의 존재는 갈등 상황을 이기고 나가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임현숙[36]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어머니의 모국어뿐만 아니라 모국 문화에 대한 역량도 함께 키울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역기관의 다각적인 방안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첫째,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므로, 다양한 국적 및 지역에 있는 참여자를 연구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별 가치관과 경험의 의미가 다르게 나타날 것을 고려해 출신 국가별로 고찰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 거주기간 7년 이상의 초등학교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자녀의 연령과 거주기간에 따른 다각적 측면의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중언어교육에 관한 어머니의 경험이므로 이중언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이중언어 사용 당사자인 자녀를

대상으로 보다 다양한 측면의 심층적인 연구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H. S. Kim, "Migrant Brides and Making of a Multi-cultural Society - Sociological Approach to Recent Discourse on Multi-cultural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2(2), pp.36-71, 2008.
- [2] T. W. Kim, "A Critical Review of Multi-culture Phenomenon on the Perspective of the Social Integration" *The Institute for Korean Culture*, 44, pp.389-423, 2010.
- [3] M. H. Kim, H. E. Shin, "Exploring Variable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Preschooler with Multi-cultural Family Background",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9(2), pp.155-176, 2008.
- [4] G. D. Kim, M. S. Park,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school adaptation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 Focusing on the Cheonan city and Asan city" *Social Science Research*, 48(1), pp.97-121, 2009[5]H. J. Shin, "A Study on Factors that Affect the Ego-identity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7.
- [6] U. Ko, "The Criteria for Value & Empirical Meaning of Mother Tongue In Case of Parents of Bilingual Children",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15(3), pp.143-162, 2006.
- [7] Y. S. Hong, "(A) study on children's educational problem of multi-cultural family and it's implications",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ter's thesis*, 2007.
- [8] J. S. Hong, "Bilingual Education and the Problem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Korea", *English language education*, 21, pp.79-100, 2000.
- [9] Bruce M. Mitchell, Robert E. Salsbury, *Encyclopedia of Multi-cultural Education*. p. 55, Greenwood Press(CT), 1999.
- [10] C. U. Park, *Genesis of Multi-cultural Education*, p. 256, Borderless village, 2009.
- [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Republic of Korea,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ervices*, 2010.
- [12] S. H. Kwon, "Necessity of Bilingual Education and a Policy Sugges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34, pp.57-115, 2009.

- [13] M. L. Jang, *A Sourcebook of Bilingual studying support program for multicultural parents and child*,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0.
- [14] Y. B. Song, "A case study of bilingual education among the elementary multicultural students", *Bilingualism*, 43, pp.247-275, 2010.
- [15] I. S. Won, "Dual-language program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self-esteem effects on parent-child relationship",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16(1), pp.89-104, 2012.
- [16] J. L. Kwon, *Understanding Multicultural Society*,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p.308-332, 2008.
- [17] H. R. Park, S. K. Han, "Preference Survey of Bilingual Education for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Language, Information and Lexicography*, 26, pp.197-225, 2010.
- [18] J. Y. Bong, "(A)study on mother's child rearing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eacher's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Doctor's thesis*, 2011.
- [19] S. H. Kim, "Qualitative Study on the Problem of Identity of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Family and Culture*, 23(2), pp.25-61, 2011.
- [20] B. H. Nam, Y. N. Kim,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as School Parents", *Youth Welfare Research*, 14(4), pp.113-142, 2012.
- [21] S. Y. Lee,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Needs of Bilingual education for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Elementary Schools in Seoul", *Bilingualism*, 46, pp.216-235, 2011.
- [22] J. M. Hong, "Exploratory Research on Multi-cultural Bilingual Educ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16(3), pp.279-302, 2012.
- [23] B. U. Kim, "Clarification of the Phenomenological Basic and Methodological Concepts and Searching for Alternative Methods for Improving Acceptability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Findings", *Sociology of Education*, 20(1), pp.25-44, 2010.
- [24] Y. H. Cho, *Qualitative Research*, p.37, Kyoyookbook, 1999.
- [25] Statistics Korea, Foreign Bride's Nationality, 2012.
- [26] Goldstein, L. S. *Teaching with love: A feminist approach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p. 156, New York: Peter Lang Publishing, 1998.
- [27] Creswell, J. W.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p.141, Hakjisa, 1998.
- [28] Lincoln, Y. S. and E. G. Guba, *Naturalistic Inquiry*. p.253-276, SAGE Publications, Inc. 2003.
- [29] N. Y. Choi, H. K. Woo, H. S. Jung, S. H. Yi, "Mothers' Parenting Stress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2), pp.255-268, 2009.
- [30] H. K. Woo, H. S. Joung, N. Y. Choi, S. H. Yi, G. Y. Lee, "Mothers' Korean Language Ability and Preschoolers' Language Development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Child Studies*, 30(3), pp.23-36, 2009.
- [31] Y. H. Moon, E. M. Ahn, "The Influence of Bi-cultural Attributes of Children From Female Marriage Immigrants on School Adjustment- Focused on northern Cholla province Rural area",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33, pp.47-68, 2010.
- [32] Petitto, L. A., Katerelos, M., Levy, B, Gauna, K, Tetreault, K., & Perraro, V. "Bilingual singed and spoken language acquisition from birth: Implingual language acquisition", *Journal of Child Language*, 28(2), pp.453-496, 2001.
- [33] S. Y. Lee, J. A. Choi, "A comparison study of parent and teacher ratings on protective factors and behavioral concerns of you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Science Education Research*, 43(3), pp.59-84, 2012.
- [34] Okita, Toshie. *Invisible Work: Bilingualism, Language Choice and Childrearing in Intermarried Families*. p.231-232 Amsterdam: John Benjamins. 2002.
- [35] M. J. Kim, M. K. Yoo, H. K. Lee, K. S. Chong, "Being "Korean" Wives: Dilemmas and Choices of Vietnamese and Filipino Migrants", *Korean cultural anthropology*, 39(1), 159-176, 2006.
- [36] H. S. Lim, "The Experience of Transition in Pregnancy and Childbirth among the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 17(3), pp.243-255, 2011.

DOI: <http://dx.doi.org/10.4069/kjwhn.2011.17.3.243>

조 승 석(Seung-Suk Cho)

[정회원]



- 2001년 2월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2010년 2월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박사수료)
- 2000년 12월 ~ 2009년 6월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팀장
- 2009년 6월 ~ 2012년 4월 : 서울시 양천구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2006년 3월 ~ 2012년 2월 : 김포대학교 사회복지과 겸임교수
- 2012년 9월 ~ 현재 : 경인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모금마케팅

김 희 순(Hee-Soon Kim)

[정회원]



- 2010년 2월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 2013년 8월 :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박사수료)

<관심분야>

사회복지실천,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정, 질적연구방법론